

부활과 밀알이신 그리스도

1/27 월요일

아침의 누림**요 16:13-15**

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 14:17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5:26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요일 2:27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동일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행 13:33),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자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들'로 태어났다(벧전 1:3). 또한 이 동일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내가 부활에 관하여 성경을 연구한 것이 오늘날 하나의 결정(結晶)이 되었다. 이 결정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것만이 아니다. ... 이 한 번의 신성한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가 아닌 그분의 맏아들을 낳으셨다. 하나님은 이 한 번의 출산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낳으셨다. 또한 그분께서 낳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 한번의 행하심을 통하여 세 가지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

주님의 부활의 이러한 주요 항목들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도 없을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생명 주시는 영에 대하여 계시하는 어떤 부분도 없다면, 하나님의 경륜도 분명 없을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7 권,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따른 삶을 사는 실제적인 길, 3 장, 43-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실재는 다름 아닌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실재의 영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실재는 그분의 완결되신 실재의 영이다(요 14:17, 15:26, 16:13, 요일 5:6).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실재는 바로 이 실재의 영이다. 또한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죽음과 부활의 실재 역시 이 실재의 영이다.

더욱이, 이 실재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재가 되게 하신다(요 16:13-15). ... 이 실재의 영은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빛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신성한 속성을 포함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속성들이 되도록 실재화하신다(롬 15:16 하, 14:17, 엡 3:16). ...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실재화된다. 따라서 교회도 그 신성한 속성들의 실재를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실재의 영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하여 삼일 하나님께서 체험하신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체험이 되도록 실재화하신다. ...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성질을 내지 않고 또한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는 이유는 실재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안에서 실재화하시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니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실재의 영께서 어떻게 삼일 하나님께서

체험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실재화하시어 교회의 실질적인 체험이 되도록 하시기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실재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되시는 것이다.

이제 이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한 영으로 합해지신다(롬 8:9-11 상, 고전 6:17).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합해지시어 우리와 한 영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존재를 그 영과 합해진 이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이 영에 두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롬 8:6 하). ... 우리는 그 영과 합해진 이 영을 따라 말하고,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 그 영과 합해진 이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 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엡 1:23).(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투시, 2 장, 32-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7 권,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따른 삶을 사는 실제적인 길, 3-4 장

1/28 화요일

아침의 누림

민 17:8

8 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었다. 심지어 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마 19:26

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고후 3:5-6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 1:20-21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5:5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두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안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하셨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민 17:5)라고 말씀하셨다. 막대기는 한 토막의 목재에 불과하다. 그것은 잎과 뿌리가 사라진 나뭇가지이다. ... 그 가지는 이전에 나무로부터 진액을 얻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죽어 있다. 열두 개의 막대기는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마르고 죽어 있었다. 그중 어느 것이든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라는 것을 본다. 또한 부활은 권위의 근거이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하), 4 장, 3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열두 개의 막대기는 하룻밤 동안 궤 앞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 열매가 달리게 하셨다. 그곳에 죽은 막대기 하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안으로 생명의 능력을 넣어 주셨다. ...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싹이 난 막대기는 먼저 막대기의 주인을 겸손하게 하며, 다음으로 다른 막대기들의 주인의 입을 닫는다. 만일 우리가 아론의 막대기와 같이 죽어있고 싹이날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를 가져갔는데, 그 다음 날 놀랍게도 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그분께 시인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닐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고후 4:7)라고 말한 것의 의미이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사랑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 그분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것이다. “이것은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원함이나 달음질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받은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여라!”(막 11:9)라고 외쳤다. 그 어린 나귀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만일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고개를 돌려 주님께 “사람들이 당신께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외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다. ... 많은 하나님의 종도 자주 이처럼 어리석다. 그 어린 나귀는 다른 나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 위에 타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찬송을 받고 계셨던 분은 그 어린 나귀가 아니라, 그 나귀를 타고 계신 주님이셨다. ...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말한다.

모든 봉사의 원칙은 싹 난 막대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열한 개의 막대기 모두를 인도자들에게 돌려주셨지만, 아론의 막대기는 영원한 기념으로 껍데 안에 두셨다. 이것은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종은 이미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권위가 사람 그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고 부활에 달려 있음을 자신의 백성에게 거듭하여 증언하신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 봉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활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다.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소망을 버렸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타고난 힘이 남아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입지를 얻지 못한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고난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하), 4 장, 328-331, 334-33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하), 4 장;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2-94

1/29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8-9

8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갈 1:15-16

15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고후 4:7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사이의 구별을 강조하는가? ... 살아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섞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분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해 넣어진다. ... 설령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들을 수행하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여전히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다. ...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일을 통해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신다.(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3 장, 47-4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 바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한 부활의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이를 통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일하신 것은 그를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하게 했고, 그 신성한 일은 바울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

한 형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의 상태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병에서 회복되게 하셨다. 그때부터 그 형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하지만 회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이 더해지는 체험을 해 본 적이 없고 단지 병이 치료되는 기적만을 체험했던 것이다.

또 다른 형제도 병에 걸렸다. 날이 갈수록 병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오랫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었고, 부활 생명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부활 생명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생명임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매우 약하다고 느끼고 큰 시험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 그분 자신을 분배해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에게 내적인 빛이 점점 분명해지자 그의 건강도 점차로 회복되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만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도 새로운 체험을 갖게 되었다. ... 이 두 번째 형제가 증언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거나 하나님의 치유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의 의미는 ... 그것에 의해 옛 창조물이 파쇄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피조물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그분의 피조물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 우주에 고난이 있는 주된 목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자체가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해 넣어지는 것이다. ... 걸 부분이 썩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생명에 더해져 우리의 성분으로 조성되는 내적 과정이 발생한다(고후 4:16). ...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무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마땅히 그분께 동의하고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안배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 안에 신성한 내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몫으로 짊어져야 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고난들을 선택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게 하시기'(히 12:10) 위해서이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롬 8:28). 어떤 선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8:29).(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3 장, 48-50, 55-5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3 장

1/30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6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고후 3:16, 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애 3:22-23

22 여호와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시 68:19-20

19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더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네. 셀라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호와 주님께 있다네.

죽을 몸인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이 죽이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거듭난 영과 우리 존재의 속부분들(렘 31:33, 히 8:10, 롬 7:22, 25)은 부활 생명을 공급받아 신진대사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후 4:16 각주 3)

거듭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지만 그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골로새서 2 장 19 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자란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충만히 계시실 때 우리는 완전히 자랄 것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계시실 때 그분의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으로 더해지고 있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느리든 빠르든 상관없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신성한 요소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하신다. 이 새로운 요소는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요소 안으로 더해진다.(날마다 새로워짐, 2 장, 23-2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증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거나 그분께 기도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자신에 의해,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지지 않으시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 주님과 함께 아침 부흥 시간을 갖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성경의 문자를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더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은 신성한 요소를 더욱더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하신다. 하나님의 새로운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질수록, 이 새로운 요소는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새롭게 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급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요소가 나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요소로 말미암아 나의 타고난 습관은 새로워진다.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가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실지 모른다. ...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 고통을 겪는 동안에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어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매일 우리 안에 새롭게 더해지시게 해야 한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게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하는 능력뿐 아니라 새롭게 됨의 결과, 즉 우리의 행동과 성격과 기질과 심지어 우리의 습관이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특히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참된 체험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소멸시키는 온갖 환경들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이 될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의 옛 창조물의 낡은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환난을 통과할 때, 매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됨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실 수 있다.(날마다 새로워짐, 2 장, 24-25, 29, 32-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날마다 새로워짐, 1-2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2 권, 장로 훈련,
2 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3 장

1/31 **금요일**아침의 누림**요 12:23-24**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 14:16-18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롬 8:28-30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얻으신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는 껍질이 되었다. ‘그분의 인성’ 대신에 ‘그분의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1 장 14 절이 하나님 자신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성한 영광 그 자체이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신성은 영광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곧 그분의 인성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의 육체는 그분의 신성을 감추는 껍질이였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었다.

신성한 영광이 그분의 육체의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필요가 있었다. 요한복음 12 장 23 절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17 장 1 절에서 그분은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 5 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1 장, 12-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의 육체 또는 인성의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는 동안, 그분은 답답해하시고 억압받으시면서,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도록 죽음이라는 침례로 침례 받기를 열망하셨다. ... 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서 죽지 않으셨다면 동일한 상태 그대로 남아 계셨을 것이다. ... 육체 되심을 통해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의 육체 안에 감추어졌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었다. 이렇게 신성한 영광이 해방된 것은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많은 밀알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분의 증거가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주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 아버지는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구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 부활은 영광스럽게 되심을 위한 것이다. 부활은 원인이고, 영광스럽게 되심은 그 결과이다. ... 이러한 영광스럽게 되심은 일종의 전이(轉移), 곧 그리스도를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로 옮긴 것이다. 포함의 단계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옮기신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첫째 단계인 육체 되심의 단계에 계셨지만, 그 단계에서 둘째 단계인 포함의 단계로 옮겨지셨다. 포함의 단계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은 합병체라는 결과를 산출했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갈망하시는 것은 유일한 합병체를 얻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우주적인 관심사이다. ...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과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시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상호 내재하심으로 하나로서 함께 일하시는 합병체이시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셋이 그 존재와 하시는 일 모두에서 합병체이심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주적인 합병체의 시작이며, 이 합병체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을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셔서 확대된 합병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확대된 합병체는 요한복음 14 장 16 절부터 20 절까지에 계시되어 있다. ... 이 합병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의 결과이다.

요한복음 14 장에는 아버지의 집이 있고, 15 장에는 아들의 포도나무가 있으며, 16 장에는 그 영에게서 난 아이가 있다. 아버지의 집과 아들의 포도나무와 그 영의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인 우주적인 합병체의 세 가지 다른 방면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1 장, 14-15 쪽, 2 장, 24-25 쪽, 3 장, 36 쪽, 4 장, 4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1-6 장

2/1 토요일

아침의 누림

요 14:23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 15:5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 16:20-21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여러분은 슬퍼하겠으나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21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엡 2:15-16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구속받은 선민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과 함께, 구속받은 선민을 끊임없이 방문하심으로써 건축되어,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선민의 상호 거처가 된다. ... 요한복음 14 장 2 절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하고, 23 절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방문하셔서 이 거할 곳들을 건축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영은 ...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 암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 안에서 건축의 일을 하시며 거처를 정하시는데,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끊임없는 방문을 통해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4 장, 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내가 본 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이다. 이 포도나무가 뺏어 나가기 위해 전 세계가 필요하다. 요한복음 15 장에서 주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1 절)라고 말씀하셨다. ... 오직 한 그루만이 유일한 참포도나무이다. 이 포도나무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다.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미국에서부터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호주 등 여러 곳으로 이미 확장되었다.

참포도나무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며, 이들은 본성상 야생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요 3:15) 참올리브나무 안으로 접붙여졌다(롬 11:17, 24). 참올리브나무와 참포도나무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참올리브나무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은 참포도나무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참포도나무의 접붙여진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끌렸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합병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무한하신 삼일 하나님의 번식, 즉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의 증가(요 3:29-30)를 위한 것이며,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확장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거함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요 15:8)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4-5, 16 절) 이루어진다.

새 아이 곧 새사람은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났다(요 16:21, 13-15). 이 새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심으로 창조되었다(엡 2:15). ... 또한 이 새사람은 아버지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으며(벧전 1:3, 롬 1:4), 그 영에 의해 믿는 이들의 영 안에 태어났다(3:6 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떠나시는 것을 겪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의 첫 번째 무리는 해산하는 여자였고(요 16:20-21), 부활 안에서 돌아오신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아이(21 절) 곧 새사람이었다(골 3:10-11).

우리가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새사람을 입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결될 것이며, 교회인 이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5 장, 59-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2, 4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7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날마다 새로워짐, 1장

찬송: 187 (英) 날마다 예수 먹으라 크고 작은 시련 속에

- 1 날마다 예수 먹으라 크고 작은 시련 속에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사람인 그를 먹으라 더 예수를 먹어 더 예수를 먹어 그분의 인성 있는데 영양실조 웬 말인가?
- 2 예수적인 사람 되는 그날까지 예수 마셔 사막에도 강이 흘러 목마름 사라지도록 더 예수를 마셔 더 예수를 마셔 그분의 인성 있는데 목마름이 웬 말인가?
- 3 하나님 계획 완전히 이루도록 예수 먹어 한 지방 한 교회로서 한 사람 표현되도록 다 예수를 먹어 다 예수를 먹어 참 소제이신 예수를 회막 안에서 누리세.

2/2 주일

아침의 누림

시 90:1-2, 8-12, 14-15

- 1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 2 산들이 생기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 8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저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므로
- 9 저희의 일생이 주님의 넘치는 진노 가운데 지나가고 저희의 연수가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 10 저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나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 11 누가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 따라 주님의 넘치는 진노를 알겠습니까?
- 12 그러니 저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 14 아침에 주님의 자애로 저희를 만족시키시어 저희가 일생 환호하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 15 주님께서 저희에게 고통을 주신 날수만큼, 저희가 재앙을 당한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